

삼성은 '성과급' 갈등... 광주·전남 기업은 '생존 전쟁'

빛그린산단 가동률 전분기 비 7.8%p ↓... 체감경기 냉각 "성과 보다 버티는 게 먼저"... 대기업-지역 제조업 양극화

광주 평동산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씩씩한 마음에 체념을 돌리기 일쑤라고 털어놨다. 최근 몇 년 사이 매출이 크게 줄어 직원까지 감축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성과급을 얼마나 더 나눌지를 두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라며 "지역 기업들은 지금 공장 가동 물량도 줄고 경영 부담이 커져 인력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연일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영업이익의 배분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원가 부담 속에서 공장 가동률 하락과 인력 감축, 자금 압박 등에 시달리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대기업과 지방 제조업 간 현실 격차를 그대로 보여

주는 단면이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만큼 실적을 내는 기업 자체가 드문 데다 상당수 중소기업체들은 수년간 누적된 경영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동향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78.50%로 집계됐다. 전분기(86.35%)보다 7.85%p 낮아진 수치다.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도 같은 기간 92.03%에서 89.74%로 하락했다.

빛그린산단은 미래차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 대표 산업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전기요금 상승, 원자재 가격

부담 등이 겹치면서 체감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빛그린산단의 경우 전체 가동업체 68개사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이 6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4개사, 300인 이상 기업은 1개사에 그쳤다. 대부분이 영세·중소 제조업 중심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공장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산업현장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4분기 가동률은 71.68%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가동업체 304개사 가운데 50인 미만 업체는 282개사로 집계됐다. 조선업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은 인건비와 자재 가격 부담, 숙련인력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감이 있어도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지역에서는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제조업 위축 흐름이 심화되고 있는데 일부 협력업체들은 납품 감소와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 역시 크게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대기업과 지역 제조업 간 격차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첨단 대기업은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만큼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방 산업현장은 여전히 생존형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광주 하남산단의 한 금형업체 대표는 "삼성전자처럼 성과급 상한 폐지를 고민할 정도면 기업 사정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 기업들은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보다 적자를 어떻게 막을지가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양재사옥에서 열린 로비 스토리 타운홀을 끝낸 후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선 "양재사옥 리노베이션...열린 공간으로"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서 '로비 스토리 타운홀' 진행 새로운 로비 공간에 갖든 철학·방향성 등 임직원 공유

"양재사옥을 어떻게 가장 알기 편하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을 보며 느낀 것은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에 놀리지 않고 본인이 사는 집보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14일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로비 리노베이션의 철학과 방향성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 '로비 스토리 타운홀'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그룹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현대차그룹 성장의 초석이 되어 온 양재사옥의 로비가 새롭게 변모한 의미를 직접 밝힌 것이다.

양재사옥 로비는 품질평가실과 품질상황실이 위치하고 신차가 전시되는 등 현대

차그룹의 주요 가치를 투영하는 장소 역할 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비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생각을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2024년 5월 리노베이션에 착수해 1년 11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올 3월 초 다시 오픈했다.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활발히 소통하는 업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자,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주는 임직원 일상의 중심이 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리노베이션 공간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이며, 대상 면적은 실내와 옥외를 포함해 약 3만6000㎡로 추구장 5개를 합친 넓이에 달한다.

'로비 스토리 타운홀'은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사장, 최준영 사장,

성 김 사장, 박민우 사장 등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로비 중앙에 조성된 계단형 라운지 '아고라(Agora)'에서 열렸다.

정의선 회장과 새 로비 기획에 참여한 담당자들이 패널로 단상에 올라 리노베이션의 배경을 소개하고 임직원들의 현직 즉석 질문이 이어지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정 회장은 "양재사옥에 온 지 20여년이 돼 가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함께 일을 잘 해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로비를 새롭게 단장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양재동의 양재(良才)는 '좋은 양' '재주 재', 즉 좋은 재주를 가진 인재가 일하는 동네"라며 "여러분 모두 인재, 양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하고 보람있게 즐겁게 일하는 방식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임단협 상견례...본격 교섭 돌입 조합·대의원 대상 광주공장 대강당서 경영설명회도

금호타이어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교섭에 돌입했다.

상견례에는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과 박근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장을 비롯해 사측 대표위원인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노측 정종오 대표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노사 교섭위원 소개와 대표이사 및 교

섭 대표위원의 인사말, 위임장 교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일택 대표는 "지난해 광주공장 화재 이후 회사 정상화와 생산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조합과 사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교섭이 금호타이어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사측 대표위원인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관세, 유가 등 악화된 대외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인가 고민"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 현장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종오 대표지회장은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교섭이 아니라, 노사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회사의 미래를 위한 교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 별관 대강당에서 조합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설명회를 열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 에너지 절감 총력...'보상형' 정책전환 박차

중등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국민 체감형 에너지 절감 지원대책을 전면 확대한다.

단순 절약 캠페인을 넘어 '아낀 만큼 혜택을 돌려주는' 보상형 정책 전환이 골자다. 한국전력은 최근 중등 위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에너지 취약부문 고효율기기 지원 강

화,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월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를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12월 검침분에 한해 기준을 1%로 대폭 낮췄다. 사실상 냉방용도 조정이나 대기전력 차단 등 생활 속 작은 절전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셈이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절감을 구간별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해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유도하고 여름철 전력 피크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도 강화된다.

한전은 주조·열처리·정밀가공 등 뿌리 산업 기업과 소상공인, 농사용 고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LED와 인버터 등 17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사회복지 시설에는 기기 구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대구일보 문화사업부

2026 제24회 내연산 전국 산행대회

6.13 토 | 포항 내연산 일원 및 구룡포시장

산행 대회

노래 자랑

구룡포 시장 투어

PROGRAM

09:30 ~ 10:20	참가자 등록 및 개회식
10:20 ~ 13:00	산행대회 내연산 보경사 입구 > 문수암 갈림길 > 연산폭포 > 내연산 보경사 입구 왕복 약 5.4km 약 2시간 내외 소요
13:00 ~ 13:30	자연사랑 노래자랑 체험부스 운영
14:30 ~ 17:00	구룡포시장 정보기 투어 일본인 가족거리 투어

참가자 모집
2026.03.01(월) ~ 2026.6.8(월) 17시까지 *선착순 마감

참가 신청
대구일보 문화사업부 <https://culture.idaegu.com>에서 온라인 신청
참가비 1만원 (대구은행 025-12-001740 예금주: (주)대구일보사)

참가 대상
전국 등산동호회원 및 개인 약 3000여명

참가특전
1. 기념품, 간식, 푸짐한 경품 증정
2. 대구 출발 단체버스 제공

산행 코스
산행대회 진행코스: 총 5.4Km / 2시간 내외 소요

참가 신청 바로가기!

주최 / 주관 | 대구일보

후원 | 경상북도 포항 posco

참가문의 : 053-757-5783